

하이닉스는 확정했고, 삼성은 예상했다 — 90~110조. 그런데 공시 제목이 "예상 규모"다

49호가 "삼성전자 공시가 나오면 채점하겠다"고 적었고, 오늘 장 마감 뒤 나왔습니다. 삼성전자는 2026년 주주환원 잔여 재원을 90~110조원으로 예상한다고 공정공시했습니다. 다만 이걸 이사회 결의로 금액을 못 박은 하이닉스와 성격이 다릅니다 — 공시 제목부터 "2026년 주주환원 **예상** 규모 및 시행 방안"이고, 본문 말미에 '예측 정보'가 포함돼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.

① 채점 — 49호가 남긴 마지막 질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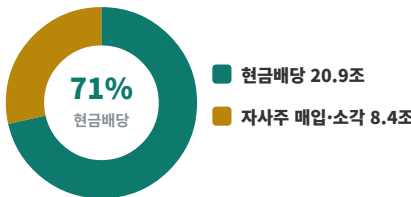
예고 (49호)	결과	판정
"삼성전자는?" — 보도 관측대로 대형 환원책이 뒤따르는지. 공시가 나오면 채점	나왔습니다. 8/21 장 마감 후 공정공시. 다만 확정 금액이 아니라 예상 범위이고, 구체안은 10월말 · 2027년 1월말 이사회로 넘어갔습니다. 규모도 시장이 보던 것보다 아래입니다(㉓)	채점 완료

② 공시가 말한 것 — 확정과 예상을 갈라서

항목	내용	성격
정책 기간	2024~2026년 3년간 발생하는 총 FCF의 50%를 주주환원 (2024년 1월 31일 공시 정책)	기존 공시
정규배당	매년 9.8조원	기존 공시
2024~25 실적	29.3조원 시행 — 현금배당 20.9조 + 자사주 매입·소각 8.4조	실적 확정
2026 잔여 재원	3년 총 FCF 50%에서 29.3조를 뺀 약 90~110조원 규모로 예상	예상
3분기 계획	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30조원 내외 현금배당 시행 계획. 구체적 내용은 2026년 10월말 이사회에서 확정	계획
나머지	2027년 1월말 이사회에서 규모·시행 방안 최종 결정 후 별도 발표.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·소각을 종합적으로 고려	예정

삼성전자 8/21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(공정공시) 원문 기준. 공시는 말미에 "2026년 주주환원 예상 규모 등은 당사의 현재 기준 재무적 예측치·경영 환경·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산출된 '예측 정보'를 포함하고 있습니다"라고 명시했습니다.

2024~25 실행 29.3조의 구성



3년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(조원)



도넛 · "삼성엔 배당 중심"이라는 말의 근거는 관측이 아니라 실적입니다. 이미 집행한 29.3조에서 배당이 71%였습니다.

가로막대 · 3년 프로그램 전체는 119.3~139.3조원이 됩니다(29.3 + 90~110). 시행분만 확정이고 잔여는 예상 범위입니다.

③ 시장이 보던 숫자와 공시가 적은 숫자

보도 관측 (8/20~21)

150조 안팎

한국경제·이데일리 등 · 100조·160조 관측도 병존

공시가 적은 잔여 재원

90~110조

2026년 · '예측 정보' 단서 포함

삼성전자 (8/21 증가)

281,500원

+3.78% · 8/20엔 9% 이상 급등

차이가 왜 나는지를 공시가 직접 설명해 뒀습니다. 3년간 총 FCF를 산정할 때 보증금 성격의 메모리 제품 LTA(장기공급계약) '선수금'과 임직원 성과급 주식보상 관련 지출액을 차감한다는 각주입니다. 시장은 올해 FCF를 크게 잡고 그 50%를 그대로 곱했는데, 회사는 그 앞단에서 두 항목을 먼저 뺐 겁니다.

타이밍도 적어둡니다. 이 공시는 **장 마감(15:30) 뒤에** 나왔습니다. 8/20에 9% 이상 오른 건 150조 관측이 돌던 국면이었고, 공시가 제시한 범위는 그보다 아래입니다. 이 간격을 시장이 어떻게 읽는지는 **다음 거래일인 8/24(월)**에 확인됩니다 — 저희는 방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

④ 이들 사이 두 공시 — 같은 "FCF 50%", 다른 문장 핵심 비교

항목	SK하이닉스 (8/19)	삼성전자 (8/21)
공시 성격	이사회 결의 — 금액 확정	공정공시 — 예상 규모 안내('예측 정보')
정책 기간	2025~2027년	2024~2026년 (2024년 1월 수립)
환원 기준	누적 FCF 50% 이상 ("50% 범위 내"에서 상향)	총 FCF 50% (기준 유지)
이번에 확정	40조 43억원 자사주 취득·전량 소각 2,407만주 = 발행주식의 3.3%	없음. 3분기 30조원 내의 현금배당 "계획"
실행 시점	8/20 ~ 11/19 장내매수 → 이미 시작	10월말 이사회에서 3Q분 확정 → 2027년 1월말 나머지 결정
주된 방식	소각 — 주식 수를 줄인다	현금배당 — 현금을 나눈다 (실적 기준 71%)

하이닉스 수치는 49호에서 검증한 8/19 이사회 결의·공시 기준, 삼성 수치는 8/21 공정공시 원문 기준입니다. 한쪽은 "얼마를 언제 어떻게"를 못 박았고, 다른 쪽은 "얼마쯤 될 것 같다"를 알렸습니다.

⑤ 소각과 배당은 주주에게 어떻게 다른가

소각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겁니다. 주식 수가 줄어드니 남은 주주의 지분율과 주당 지표(EPS·BPS)의 분모가 작아집니다. 현금이 손에 들어오지는 않고, 팔 때까지 세금도 없습니다. 하이닉스가 3.3%를 태우는 방식입니다.

배당은 현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. 대신 배당소득세가 붙고, 주식 수는 그대로입니다. 삼성이 3분기에 30조원 내외로 하겠다는 쪽입니다.

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다만 **확정도가 다릅니다**. 하이닉스는 어제부터 실제로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있고, 삼성은 10월말과 내년 1월말 이사회를 두 번 더 거쳐야 금액이 확정됩니다. 지금 손에 쥔 정보의 무게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.

덧붙이면 3분기 30조원에는 **정규 분기배당(연 9.8조의 4분의 1인 약 2.45조)**이 포함돼 있습니다. 나머지 27조 남짓이 사실상 특별배당 성격인데, 이 배분은 10월말 이사회에서 확정됩니다.

⑥ 각주 하나 — "LTA 선수금"이 여기서 나온다

FCF 차감 항목으로 적힌 **메모리 제품 LTA(장기공급계약) '선수금'**은 40호에서 시작한 메모리 아크와 정확히 만나는 대목입니다. 46호에서 샌디스크가 고객 여덟 곳과 4년치 물량·가격을 계약으로 묶었다고 적었는데, **그 구조가 삼성 재무제표에는 '선수금'으로 들어와 있다**는 뜻입니다. 고객이 물량을 확보하려고 돈을 미리 넣는 것이니까요.

회사가 이걸 FCF에서 빼는 이유는 **보증금 성격**이기 때문입니다. 들어온 현금이지만 회사 돈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물건으로 갚아야 하는 뭉이라, 주주환원 재원으로 세지 않겠다는 것. 호황의 현금이 어디까지 진짜인지를 회사 스스로 선을 그은 셈입니다.

⑦ 다음 확인 지점

월 8/24 — 국내 장

공시가 장 마감 후 나왔으니 첫 반응은 **월요일**. 보도 관측(150조 안팎)과 공시 범위(90~110조)의 간격을 시장이 어떻게 읽는지

10월말 — 삼성 이사회

3분기 30조원 내의 현금배당의 구체안 확정. 주당 금액과 기준일이 여기서 나옵니다

11/19 — 하이닉스

40조 자사주 매입 종료 예정일. 실제 취득 수량·단가가 계획대로 집행됐는지

2027년 1월말

삼성 나머지 주주환원 최종 결정. 배당과 자사주 중 어느 쪽에 얼마가 실리는지